

EC HO

소확행

개운하기상한 하루의 시작처럼
퇴근 후의 맥주 한잔처럼
당신의 확실한 행복을 위하여.

14

2018 APR

EC HO

vol. 14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권재승 Kwon jae seung 우혜정 Woo hye jung

편집위원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손민경 Son min kyeong

Editor - 김윤지 Kim yoon ji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Design - 이다혜 Lee da hye

Design - 전명주 Jeon myeong joo

Photo Editor - 이경연 Lee kyeong yeon

VOL14 CONTENTS :

E

06 27세,9000일의 나를 변화시킨 25일

누구보다 확실한 행복을 가진 학우의 이야기

10 미니멀리즘을 사는 사람

거창하지 않은 소소하고 담백한 삶

12 소소하지만확실하게 싫어하는것

C

15 찾지 못한 당신의 소확행

어딘가에 있을 당신의 행복을 찾아서

20 집순이의 24시간

집에만 있어도 24시간이 모자르다!

22 소소하기에 더 행복한

여유로운 행복에 관하여

24 당신의 행복 버튼

에코 팀원들이 가진 소소한 행복 버튼은?

H

30 강박증,소소하지만 확실한 그것

공감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의 이야기

32 당신의 소소한 여행담

34 소소한 막사

막걸리&사이다와 함께 하는 피크닉은?

O

36 소소한 시리즈

소소한 영화/음식/디저트

43 TATTO

47 인스타그램 폭풍 업로드

할 수 있는 대구대학교의 포토존

49 GET READY WITH ECHO

완연한 봄을 위한 블러셔 추천 / KIRSH와 함께하는 봄 패션

52 현상소

에코가 드리는 매달의 필름 선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당연하지.”라며
마냥 받아들이기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 중 하나인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3포세대에서 N포세대가 되기까지 청년들은
수많은 것을 포기해왔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소한 것들이었으리라.
거창하고 화려한 것들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열광하고 ‘웰빙’, ‘워라벨’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뜨는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유행하는 라이프스타일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 자신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하는
마음이 반영되어있다.

당신의 소확행은 무엇인가?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작은 행복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에.

누구보다 행복한 그들이되길 바라며
ECHO의 14번째 메아리를 함께 해보자.

E

engaging

27세
9000일의 나를
변화시킨
25일



행복,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이
단어가 가져다주는 힘은 엄청나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만 여겨지는 매일 속에서
누군가 네 주위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묻는다면, 당연히 이 사람이
아닐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김영후 학우에게서 행복을 들어보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사실 그렇게 깊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는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나는 행복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었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하루하루 설레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수준의 대학생활을 하던 3학년 2학기 중, 우연히 해외봉사단 모집 공지를 보았고, 무언가에 홀린 듯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이라는 사명감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컸습니다.

3개월간의 사전 준비 기간, 교육을 마친 뒤 25일간의 탄자니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고 들던 아프리카는 '절망'만이 가득한 곳, '생명이 말라버린 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친구들에게 희망을 선물해주고 오자'고 다짐을 하였으나, 탄자니아 아루샤주에 있는 '마사이 스쿨' 학생들을 만난 뒤 그 생각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난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2시간을 걸어가기도 하고, 광활한 대지를 곁에 두고 앉아 웃음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일하다 내일로 미루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며 놀기도 합니다. 품속에 안겨 반짝 빛나는 눈동자로 우리에게 속삭인 그 친구들의 때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들은 오히려 제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더 큰 내일, 더 큰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오늘을 오늘답게 즐기고 보내는 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나 내일 다가올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오늘을 망친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내일은 내일 열심히 하면 돼!”라고 외치는 탄자니아 친구들의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 많은 걱정과 고민에 쌓여 오늘 흘러보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직후에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게 하였는지를. 시간이 흐른 뒤에 차츰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막연히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탄자니아 친구들에게서 배운 삶의 태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9000이라는 숫자에 기대어 보기에는 25일이란 숫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27살, 9000일 정도를 살아오며 25일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나비효과’처럼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풍요롭고 가슴 뛰게 하였던 짧지만 강렬한 추억들이 가득한 저는 그 소중함을 발판삼아 내일을 위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에 매일 너무 설레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무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단단한 꿈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살아오다 보면 큰 고민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긴 시간의 고민과 그로 인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운명적으로 다가올 기회와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



효율적인 결정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이 당연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결정일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길게 고민할 필요 없이 순간에 충실한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좋던, 싫던 순간의 감정을 진실 되게 느끼고 열정적으로 기억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볼 때 가장 소중한 인생의 책갈피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이 아닌, 오늘을 위한 지금을 즐기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뿐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사는 사람

사람들의 유형에는 낮을 사랑하는 사람, 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듯이
미니멀리즘을 사랑하는 사람, 맥시멀리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ECHO에서 미니멀리즘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심플하게 산다”

미니멀리즘을 살고 있는 내가 정의하는 나의 삶은 ‘심플하게 산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행복했고, 과식과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결국 돌아오는 건 포만감과 후회. 지금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들이 좋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 조금씩 먹을 만큼만, 내가 좋아하는 그릇에
담아먹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틈나면 산책도, 내 몸의 밸런스가
그렇게 조금씩 맞추어진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모두 마다하지 않았고, 밝은 성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한몫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란 좋은 일 아닌가. 그런데 차츰 그 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다. 비생산적인 인간관계는 줄여나갔다. 이는 정 없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지속해나갈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내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깊어갔고, 시간에 따라 잊혀가는 관계보다, 갈수록 무르익어가는 열매 같은 관계가 더 좋아졌다.

과거 옷에 많은 소비를 했다. 옷은 나를 나타내는 개성이라고 생각기 때문이다. 그만큼 옷차림은 사치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때는 유행하는 스타일이 가장 예쁘게 보였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본다는 충동구매 그게 내 일상이었다. 가끔씩 기분전환으로 쇼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계속되는 것이 문제이고 그 끝은 언제나 후회였다.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우선이다. 나만의 옷을 적당히 소유한다. 우아한 옷차림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정보화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정보 그리고 욕망과 유혹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져 있다. 양적으로만 풍족한 삶은 아름답지 않다. 심플한 삶은 아름답다. 적게 소유하지만 사물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 그래서 더 특별하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싫어하는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실 확실한 행복이란 말은 무책임한 말이라 생각된다. 그래도 소소하지만 나를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돌이켜 본 결과, 그다지 무책임하지 않은 말이구나, 하고 되새겨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 소소하지만 확실히 싫어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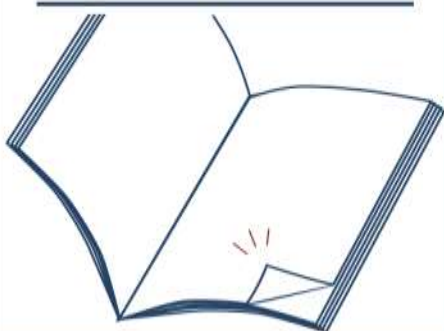
손톱 거스러미

내 손톱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부터 나는 괴로워진다



2

급하게 책을 덮으며
접힌 페이지를
발견한 순간



3

막대사탕을 녹여
먹다가 표면에 생긴
작은 틈에
혀가 베일 때



4

티라미수를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들숨인 상태로 먹고
1초 후

상상만으로 괴로워졌다

5

김치를 먹다가
작은 조각인 줄 알고
먹었던 게
생강이었을 때

자매품으로
닭백숙 속 마늘이 존재한다

6

뚱뚱한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꽂으려다
한 번에 꽂히지 않고
튀겨 나가 빨대가 접힐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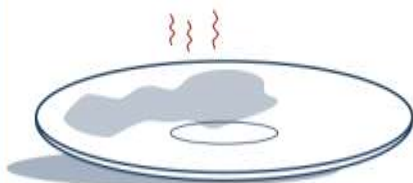
7

면봉으로 귀 청소
하다가 힘 조절에
실패해 어느 한 곳을
푹 찔렀을 때

울 수밖에

8

하얀 그릇에
카레물이 들어
안 빠질 때



싫어하는 것
확실하게
소소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둘러보면 더 많은 상황이 존재하지만,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나 많기에 간소하게 줄여보았다. 나 이외에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싫어할 만한 상황임에 난 자신한다. 누가 보면 난 매사 모든 순간에 싫어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에 비례하게 행복한 상황들도 존재하긴 마련이다. 가령, 택배 상자에서 택배 주소지 종이가 한 번에 깔끔하게 뜯어질 때와 나무젓가락이 정확하게 반 갈라져 뜯어질 때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싫어하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것을 돌이켜보다 하나의 결론이 내려졌다. 우리 모두 사소한 순간, 순간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감정에 있어 부지런쟁이인 것일까.

C

communicating

찾지 못한 당신의 소확행

올해의 트렌드인 소확행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바쁜 시간 속 소소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시간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다.
우리는 항상 여유를 위해 달리기보다 경쟁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같다.
에코를 읽고 있는 당신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에코가 당신들의 소확행을
즐길 수 있게 찾아 주려 한다.

1. 보송한 침대에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누워있기:

이렇게 바쁜 나날 우리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몸 역시 편히 뉘 수 없고 항상 우리를 옥죄이고 있다. 잠깐의 여유가 생긴다면 보송한 침대에 몸을 담고 편히 누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불의 촉감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소확행이 아닐까 추천해본다.

2. 토요일 새벽 못 본 영화 보기

대학생, 청년들에게 가장 행복한 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아닐까? 바빠서 항상 놓친 영화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여유롭게 즐기기에 가장 적합하다. 영화가 즐거워서 행복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영화를 본다는 여유에 행복함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 고요한 새벽의 행복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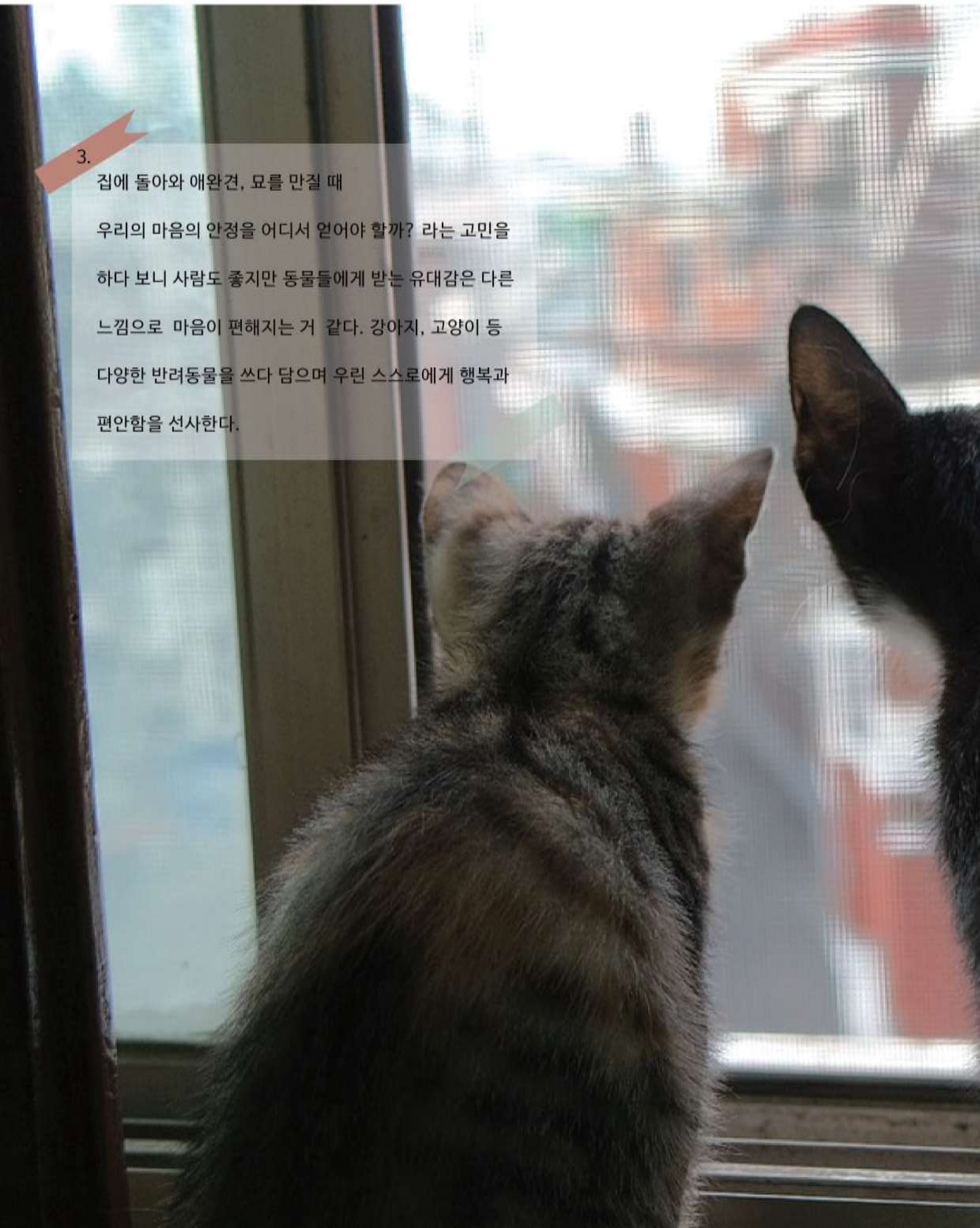


라치드를 얻을 수가 없어요

3.

집에 돌아와 애완견, 묘를 만질 때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사람도 좋지만 동물들에게 받는 유대감은 다른 느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거 같다.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쓰다 담으며 우린 스스로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선사한다.





4.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시끄러운 생활 속에서 조용히 노래를 감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휴식의 공간을 선사시킨다.
그 속에서 잠시 벗어나 소소한 행복감에 젖어들자.

집순이의 24시간 🕒

미세먼지도 많고 점점 몸이 피로해져 밖에 나가기도 귀찮은 요즘.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시간 아깝고 무료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프로 집순이의 알차게 방콕하는 방법!

1. [3a.m-12p.m 최대한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기] - 평소에 일찍 잠들진 못했어도 일찍 일어나며 지쳐버린 몸을 우선
꼭 쉬게 해주자. 최대한 잠들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하며 눈 감으면 스르륵 잠들 정도가 되었을 때 눈을 붙여야 한다. 그리고 절대
10시 전으로 일어나지 말고 여유를 만끽하며 햇살이 집 안을 완전히 비출 때 눈 비비며 일어나면 벌써 집순이 하루 1단계 성공!

2. [1p.m-3p.m 밥은 이왕이면 만들어서] - 귀찮음과 늘어짐의 대명사인 집순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요리'.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집순이들은 생각보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많다. 자고 일어나 머리카락을 질끈 묶고 냉장고를 보며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지 하고 요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리 고수가 되어있을 거다.
주말에야말로 매일 밖에서 지겹도록 먹는 패스트푸드 말고, 집에서 직접 해 먹는 슬로푸드의 여유를 느껴보자.



3. [3p.m-6p.m취미 즐기기] - 취미가 하나라도 있으면 집에서 시간 보내기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평소에는 일상에 치여 잘 하지 못했던 일이면 더욱 좋다! 우선 나는 '피포 페인팅'을 하는데 한때 유행했던 영화 그리기를 말하는 거다. 밥 먹고 집중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가버린다. 집에서 놀면 무기력해진다? 절대! 취미 생활을 하는 동안 집중력도 키우고 시간도 보내고 재밌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다.



4. [6p.m-8p.m 밀렸던 영화나 만화는 한 번에] - 어느 정도 취미 생활까지 했겠다 잠깐 머리를 쉬게 하고 싶을 때 곧바로 영화나 만화를 틀면 그것만큼 노곤해지는 게 없다. 밀려있던 영화나 프로그램들을 즐겁게 보며 몸도 쉬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지만 꾸준히 좋은 방법!



5. [9p.m-10p.m 집에 있어도 샤워는 항상] -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집에 있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집에 있으면 씻지 않게 돼서 찻잔하단 점이다. 물론 집에 있으면서 매일 머리 감고 하기 귀찮을 순 있지만 그래도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할 때의 그 안락함은 가져다 주는 느낌은 얼마나 좋은가! 집에 있지만 청결은 유지해 상쾌한 기분으로 보내자.

6. [11p.m-2a.m 밀린 연락 답장과 함께] - 집에 있다 보면 지인들의 연락을 실수로, 혹은 고의로 안받는 경우가 많다.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바빴다면 이제 불을 끄고 누워서 하나하나 답장을 하자. 답장도 다 했다면 웹서핑이나 인터넷 쇼핑, 또는 휴대폰 게임 등을 하며 잠이 들길 기다려보자. 이어폰으로 잔잔한 노래를 들으며 글을 읽어도 OK. 흔히들 말하는 새벽 감성이나오는 시간, 당신의 감성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으로 써보면 어떨까.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줄 알았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할 일이 많다!
아직 조금 쌀쌀한 날씨, 날이 풀릴 때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소소하기에 더 행복한

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바로 '여유'라고 생각한다.

4월이 되면 중간고사, 과제, 학과MT 등의 행사들로 3월보다 좀 더 바빠진다.

이러한 바쁜 일상 속의 여유, 또는 바쁜 일상을 끝마치고 난 뒤의 여유는 더욱 달콤하다.

평소 3~40분씩 등하굣길을 걸어 다니는 나는 항상 등교친구 멜론과 함께한다.

나의 애정 가득한 플레이리스트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이야기 해보려 한다.

#오전, 등굣길

♪ 청하 - 너의 온도 (Remind of You)

매일 오전, 나는 수업 시작 두 시간 전 쯤 휴대폰 알람소리를 듣고 힘겹게 일어난다.

멀리서 통학을 하는 친구들 보다는 수월한 등굣길이지만 운동을 싫어하고 귀찮음이 심한 나에게겐

20분 거리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 수업에 늦어 빠르게 걷는 날엔 15분 내외, 날씨 좋은 날 설렘설렘

걸어갈 때면 25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지만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걸어가는 그 순간의 여유가 좋아서

일부러 10분 일찍 나가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 보기도 한다.

[보컬의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로만 이루어진 단출한 곡이지만 특유의 청량한 음색이 잔잔한 가사와

어우러져 하루를 시작하며 듣기 좋은 곡이다.]



#저녁, 하굣길

♪ 박보람 - 애쓰지 마요

하굣길은 같은 길을 걸어도 등굣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그런지

등굣길에서는 안보이던 주변 풍경들이 눈에 잘 들어온다. 활짝 핀 4월의 꽃들을 자세히 보기도 하고,

괜히 잔디밭 위 고양이 사진을 찍어보기도 한다. 특히 봄에는 솔솔 불어오는 바람과 지고 있는 노을,

따뜻한 공기가 좋아서 일부러 길을 빙빙 돌아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드는 참 모순된(?) 마음이다.

['애쓰지 마요'는 이별노래이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의 가사가 새로운 하루를 또 끝마쳐가는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위안을 주는 것 같아서 하루가 끝나갈 때 즈음 듣는 것을 추천한다.]



#자정, 잠들기 전

♪ 스탠딩에그 - Little Star

개인적으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길고도 짧았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누우면 어깨, 허리, 다리까지

짜 뜰지면서 긴장이 풀린다. 금방이라도 눈이 감길 듯이 피곤해도 꼭 하는 것이 있다. 무드등만 켜놓은 채

노래를 들으면서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든다.

[속삭이는 듯한 잔잔한 멜로디와 달달한 가사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로 꼽는 곡이다. 새 학기가 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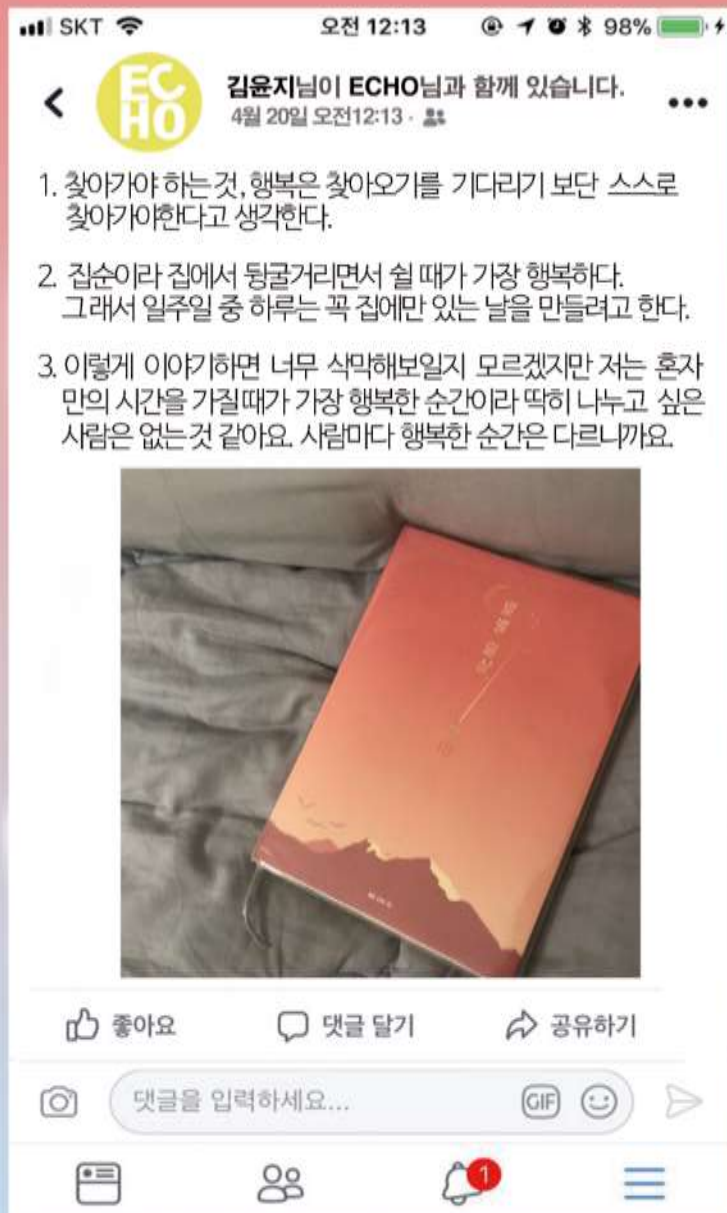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도 소소하기에 더 행복한 여유를 찾아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라면 한번 들어보도록.]



당신의 행복버튼

행복 (幸福):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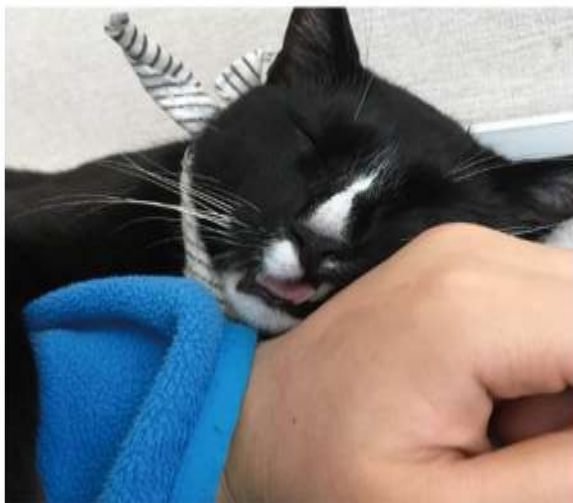
당신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했던 그때는 언제인가? 당신의 뇌리에 스치는 여러 기억 속 행복 안에 나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에코 멤버들에게 누군가를 대표하여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소소한 행복이라면 함께 공감해도 좋지 않을까?



SKT 오전 12:13 98%

< ECHO 우혜정님이 ECHO님과 함께 있습니다.
4월 20일 오전12:13

1. 나에게 행복은 사랑이다.
2.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할 때
3. 이 행복함을 우리집 사람 같은 고양이인 보리와 함께 보내고 싶다. 보리는 옆에서 나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1

SKT 오전 12:13 98%

< ECHO 김가희님이 ECHO님과 함께 있습니다.
4월 20일 오전12:13

1. 매일과같이 평범한 것이 나의 행복
2. 좋아하는 노래를 뽕뽕하게 틀어놓고 드라이브할 때 차 속도가 올라가면서 노랫소리가 같이 커지면 너무 신나요!
3.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뭐든지 함께하는 행복하기 때문에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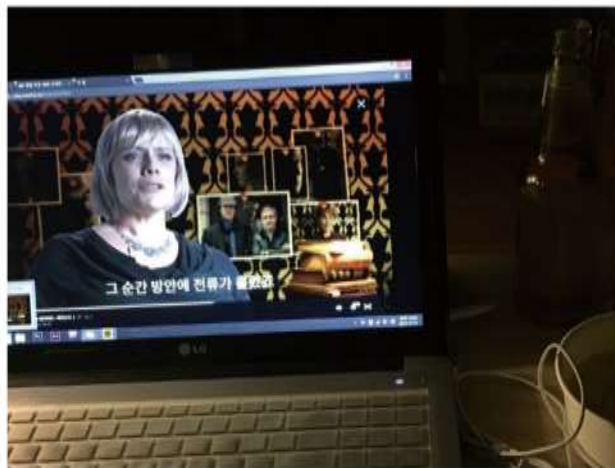
댓글을 입력하세요...

1

SKT 오전 12:13 98%

< ECHO 김나영님이 ECHO님과 함께 있습니다.
4월 20일 오전12:13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2. 혼자 영화 보면서 좋아하는 맥주 마실 때 몸에 열이 오르는 상태로 시원한 이불 위에 대자로 누웠을 때
3. 엄마, 엄마는 나랑 늘 맥주마시고 싶어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영이는 됐어!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1

SKT 오전 12:13 98%

< ECHO 공유나님이 ECHO님과 함께 있습니다. 4월 20일 오전12:13

1. 갓 구운 빵 같다. 갓 구운 빵은 따뜻하고 맛있는 빵 냄새가 솔솔 나는것 처럼 나에게 행복은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에 나의 기분 좋은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솔솔 전해지기 때문이다
2.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카페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웃고있는 그 때가 나에게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3. 내가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겐 한없이 따뜻한 아빠다. 우리아빠는 어딜 가나 딸이 최고인 딸바보 아빠다. 대학교를 오게 되면서 아빠랑 둘이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나에게 행복한 순간인 카페에서 이야기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1

SKT 오전 12:13 98%

< ECHO 손민정님이 ECHO님과 함께 있습니다. 4월 20일 오전12:13

1. 나에게 행복은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입니다.
2. 날씨좋은날 여행가서 바람 쐬 때
3. 남자친구.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편하게 해줘서 2배로 행복 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1

SKT 오전 12:13 98%

< ECHO 손현아님이 ECHO님과 함께 있습니다. 4월 20일 오전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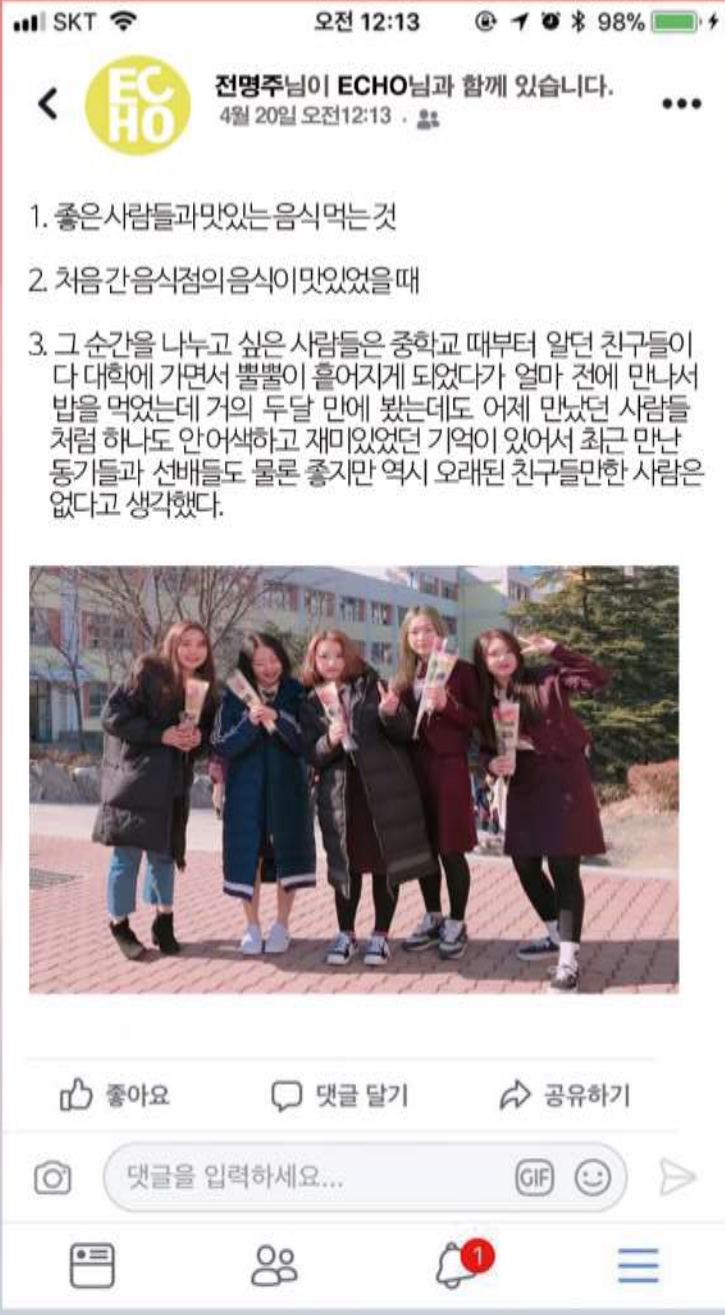
1. 사소할 때 더 반가운 것! 겨울철 주머니 속 핫팩이나 샤워 후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같이
2.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나를 반겨주며 꼬리를 흔들 때 세상 모든 행복과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 같다. 피로가 싹 풀린다.
3. 우리 강아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스러움을 전파해서 같이 행복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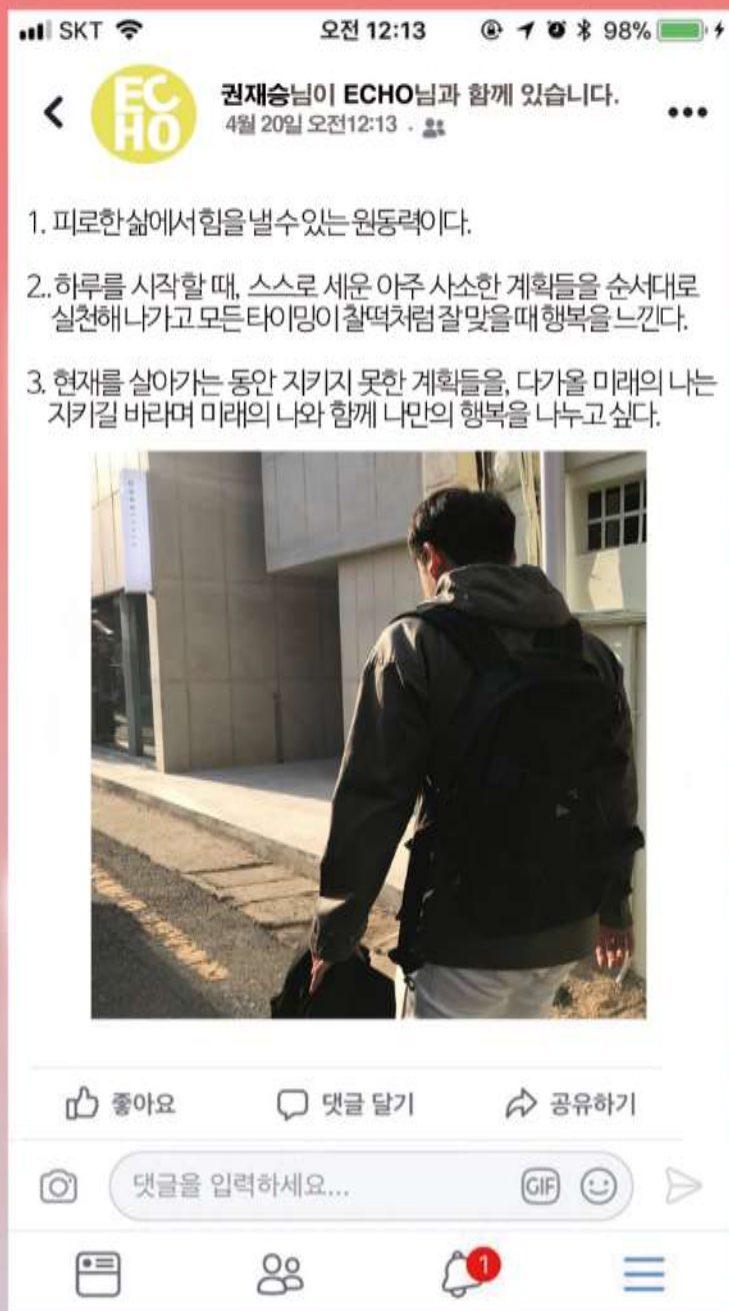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1





에코의 행복배튼

H

hosting

강박증, 진정으로 소소하고 확실한 그것.

누구에게나 한 가지에 집착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실상 소소하고도 확실하게 다가오는 건 강박증의 형태가 아닐까. 여러 강박증과 그를 가진 이들이 겪는 것은 어떤 군상(群像)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1. 어떤 강박증이 있나요?

A : 확인 강박증이에요. 고데기, 가스 밸브, 창문, 문 잠그기 등 집을 나서기 전에 확인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으면 싸해서 다시 확인하고 밖을 나가서도 불안해서 다시 돌아간다거나 가족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 실수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 강박증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렬이나 수집 강박증도 조금 있었어요!

C :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방에 물건을 넣을 때 차곡차곡 넣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파일은 항상 뒤쪽에 두고 차례대로 공책 혹은 전공 책을 높낮이로 정리해서 넣고 필통과 물통은 정리하고 남은 옆 공간에 넣어요. 그리고 책꽂이에 책을 넣을 때도 높이에 맞춰서 넣어요. 그리고 물건을 넣는 바구니에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가지런히 정리한답니다.



2.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 : 학교에 다니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를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B :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대 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C :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저는 더러워도 되지만 내가 사는 환경은 더러우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어지럽히거나 틀에 안 맞게 넣어둔 걸 보면 얼른 달려가서 치우고 더럽힌 사람한테 진짜 정색하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3. 강박증이 행복으로 다가온 적이 있나요?

A : 전혀요.

B : 정렬 강박증은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내가 원하는 면으로 있으면 저 혼자만의 행복으로 다가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워낙 피곤해했고, 커가면서 자연스레 없어졌어요. 요즘도 식탁이나 의자 줄이 안 맞으면 맞추긴 하지만요. (웃음)

C : 정말 그 행복은 글로 표현할 수 없군요. 어떤 공간에 제가 넣고 싶은 물건이 딱 맞게 들어갔을 때, 늘 짜릿하고 새로워요. 무엇보다 깔끔하니깐 보기가 좋아요. 공부하다가 가끔 서랍을 열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요. 특히 시험 기간에 자주 열람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4. 강박증이 스트레스로 다가온 적이 있나요?

A : 네.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 때문에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심할 때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B :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확인 강박증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은 날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제가 쓴 고데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일이었어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C : 아무래도 자신을 옥죄이는 게 있죠. 맘에 안 들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물건을 막 던지죠. 그러면 이제 맘스터치 당하는 거죠. 약간 뽀빠이의 띠 같죠. 근데 진짜 높이가 안 맞거나 공간에 알맞게 안 들어가면 정말 화나요. 또 짜증이 나서 치킨 시켜먹어요.

5. 강박증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A : 항상 고치고 싶어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제품들 사진을 찍어두면 불안하지 않다는 조언을 들어서 해보려고 해요.

B : 항상 하는 중이지만, 고쳐지질 않아요. 가스 불, 멀티탭과 고데기 꼬기, 냉장고 문 닫기, 창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는 다 확인해도 문을 나서면 또 불안해지거든요.

C : 딱히 없는 거 같아요. 다만 이러다가 성격 파탄자가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고치고 싶진 않아요. 이것도 제 모습의 일부분인 거고 잘 정리되어 있거나 딱 알맞게 들어가 있는 물건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못 잃어요.

당신의 소소한 여행담

사람은 누구나 추억으로 살아간다고들 한다.

우리 역시 그렇다.

바쁜 일상에 지칠 때면 우리는
문득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가 있다.

소소하지만 확실히 내게
행복한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
당신의 지난 여행담이다.

손민경의 소소한 여행담

작년 여름 친구와 다녀왔던 제주도에서의 소소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뚜벅이 여행이라 온종일 버스만 타야 했는데 오설록에 가던 중 이상한 정류장에 잘못 내렸었다. 정말 정류장 표지판도 없는 풀숲이었는데 갑자기 여우비가 내리면서 친구랑 같이 비를 맞으며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화도 안 나고 기분 좋게 웃기만 했었다. 또 금능 해변에서 협재 해변까지 올레길이 있는데 수심이 얕아 바닷물에 종아리까지 발을 담그고 10여 분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던 기억이 남들한테 굉장히 소소할 수 있어도 내겐 요즘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행복한 기억이다.



정소효의 소소한 여행담



친구들과 다 같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디즈니랜드에 갔었다. 구에서 사진을 찍으려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듯한 일본인 고등학생 무리도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먼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고 우리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헤어졌는데 그 넓은 곳에서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중 그 무리를 다시 만났다. 너무 반가웠는데 그 애들이 먼저 다가와 '같이 놀지 않을래?'라고 물어줘서 그 애들과 함께 놀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 말은 안 통했지만 우리가 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어줘서 다행이었다. 아마 지금까지 내 여행의 기억 중에 가장 특별한 추억이 아닌가 싶다.

이다혜의 소소한 여행담

새벽에 친구를 동대구역에 데려다주고 학교로 돌아가려 버스를 탔다. 새벽이라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깨우길래 눈을 떴더니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아가씨 자릿세 내야 해~”라고 하시길래 창밖을 봤더니 버스의 반대 종점인 칠곡경대병원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어찌다 보니 대구 여행이 되었는데 폭 자고 깨서 그런지 엄청 개운한데다가 그 날 날씨도 쓸데없이 근래 중에 제일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이런저런 낮 감성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덜컥거리는 버스 안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학교로 돌아가는 한적한 오전의 날이 되게 별거 아닌데도 소소하게 행복했던 기억이다.



한 성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젊을 때 꼭 돈을 다 써서라도 유럽이든
어디든 여행을 꼭 가야 한다.
나이 들면 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가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행복해한다.’

다가오는 여름,
이틀 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건 어떨까?

아마 그 때의 기억이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른다!

당신의
소소한
여행담

소소한막사

막사란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은 것
하지만 그들에게 막사란 돛자리와 막걸리를 들고
봄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네요
벚꽃이 팝콘처럼 만개하고 눈처럼 휘날리는 그때,
그들에 대해 알아보러 갑시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멧쟁이 최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사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막사를 정말 좋아하는 14학번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날씨가 좋아져서 꽃구경도 할 겸 돛자리를 펼치고
동기들이랑 선배님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대학교에 오기 전에 막사라는 것을 모르다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 해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벚꽃잎도 날리고 진짜 봄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막사를 하면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막사가 좋은 이유 있나요?

모든 대학 새내기들이 바라왔던 캠퍼스 라이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선선한 날씨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동기,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입니다.
막사의 매력은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 같아요.
봄 말고는 막사를 잘 안 하거든요. 봄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에
막걸리 한잔이면 이거 말로 표현 못 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당장 하고 싶네요!

최애 막걸리를 알려주세요!

바나나 막걸리, 밤 막걸리입니다.
달달하고 어느 순간 기분이 좋아져있기 때문에..
저는 알밤 막걸리와 바나나 막걸리를 사랑합니다.
원래는 그냥 막걸리를 좋아하다가 이번에 먹어봤는데
달달한 게 술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요새 좋아 아니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막사란?

평일 낮의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탈.
저에게 막사란 여자친구 같아요
봄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랑 벚꽃길에서 데이트하면
설레는 것처럼 저는 막사 하면 너무 설레더라고요
진짜 봄이 왔다 싶기도 하고 다음에는 꼭 여자친구와
막사하고 싶네요 물론 이번 연도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이 거의 끝나버렸네요 :(

이들을 이야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함께 막사를 떠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야속하게도 벚꽃이 떨어진 곳도 많겠지만 봄은 이제 시작이니깐요!

햇볕 잘 드는 곳으로 돛자리와 막걸리를 사서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소소한 시리즈

movie
food
dessert

소소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영향 탓인지,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플롯이 주로 이르던 기존 영화에서 벗어나
소소하고 덩덤하게, 혹은 감정 소비를 크게 하지 않는 영화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화려한 액션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감 없는 스토리도 잠시 접어두자.

그리고 스크린에는 오로지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

누가 나를 관찰이라도 한 듯 그저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가 리틀 포레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에디터는 음울하고 무거운 감정 소모가 큰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발굴해낸 보석 같은 존재들을 내보았다.
평균 평점이 높은 작품들이니 꼭 한 번 보길 바란다.

1. 하나와 엘리스

(2004, 일본, 로맨스/멜로, 감독 : 이와이 순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인 하나와 엘리스. 어느 날 엘리스는 최근 관심을 둔
남자애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를 끌고 가고, 그곳에서 하나는 엘리스가 말한
남자가 아닌 '미야모토'에게 반하게 된다.

남몰래 미야모토를 뒤쫓는 와중에 그가 자신보다 한 살이 많으며
만담동아리 소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도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
늘 미야모토를 주시하던 하나는 머리를 부딪친 채 쓰러지는 미야모토를
발견하고, 그가 잠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한 순간에

'선배가 나에게 고백을 했어요.'라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애정관계가 유지되는 와중에 엘리스는 하나를 위해
그 거짓말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를 위한 연극 속에서 자신도 미야모토에게
점차 호감을 느낀다.

이와이 순지 감독의 작품은 '블랙 순지', '화이트 순지'로 구분된다.

음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블랙 순지 작품과 그에 반해 가볍고

밝은 분위기의 화이트 순지 작품. 그리고 '하나와 엘리스'는

화이트 순지 작품이다. 고교생활 한 번쯤 겪어본 짝사랑과
단짝 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선. 친구이기에 가능했던
부탁들과 무모한 행동들이 이 영화에 온전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정을 지나면서 수많은 '하나와 엘리스'를 만난다.

이 영화는 당신의 이야기다.

(바닷가를 갈 때 '하트 스페이스 찾기' 놀이를 해보길 추천한다.)





2. 중경상림

(1994, 홍콩, 드라마, 감독 : 왕가위)

경찰 223은 늘 패스트푸드점에서 헤어진 연인의 연락을 기다린다. 5월 1일은 자신의 생일이자 연인과 헤어진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그는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 모으기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연락이 오지 않으면 그녀를 잊기로 한다. 그렇게 연인의 연락이 오지 않아 실의에 빠진 경찰 223은 술집을 찾아 그곳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여자를 사랑하기로 한다. 그 시각, 자신의 마약을 빼돌린 채 배신한 사람을 찾아 제거하고 술집을 찾은 노랑머리 마약 밀매 중계자는 그곳에서 경찰 223을 만나게 된다. 한편, 경찰 663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늘 똑같은 샐러드를 사러 간다. 그리고 그가 점원 페이는 그를 몰래 짝사랑한다. 어느 날 경찰 663의 앞으로 그의 연인이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그의 아파트 열쇠를 패스트푸드점에 맡기게 되고, 실의에 빠져 차마 편지를 읽어 볼 용기가 없던 경찰 663은 잠시만 그 편지를 맡아 주길 말한다. 페이는 그가 출근하는 시간에 몰래 그의 아파트로 들어가 그의 집에 남아있는 헤어진 연인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며 꾸미기 시작하고, 경찰 663은 자신의 집이 전과 달라짐을 눈치를 채기 시작한다. 경찰과 마약 밀매 중계자, 그리고 주거 침입까지 서슴지 않는 이 영화 내용이 어떻게 소소한 영화에 속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네 남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감정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다면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닐 터. 우리는 그저 왕가위가 풀어내는 1994년 홍콩의 낭만을 가만히 즐길 준비만 하면 된다.

3. 아멜리에

(2001, 프랑스 • 독일, 로맨틱 코미디
감독 : 장-피에르 주네)

아멜리에의 아버지는 의사이며 무뚝뚝하다. 어느 때와 같이 진찰하기 위해 아멜리에를 여기저기 관찰하던 중, 오랜만에 느낀 아버지의 다정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아멜리에를 심장병에 걸렸다 오해한다. 아버지의 오해 때문에 아멜리에에는 학교 선생님인 어머니를 따라 학교에 가지 않은 채 홈스쿨링을 하고, 그런 어머니마저 노트르담 성당에서 뛰어내린 관광객에 의해 하늘로 보내야 했다. 아멜리에의 유일한 친구인 금붕어마저 어항을 탈출하여 죽음을 맞이하자 아멜리에에는 완전한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 한구석 오래된 장난감과 사진이 담긴 낡은 상자를 발견하고서부터 그녀의 일상은 달라진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일을 하며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던 아멜리에. 그리고 그녀에게 또다시 나타난 미스터리하고 운명적인 만남. 외톨이가 된 채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물건과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자신의 주변. 다른 이의 행복을 찾아주면서 자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건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만난 영화속 주인공 중 가장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인 아멜리에, 그녀의 삶에는 엉뚱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넘쳐나지만, 그녀가 그런 일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관찰하다 보면 2시간의 러닝 타임은 금방 지나가버린다. 지금 이 순간 무료하고 따분하다고 느껴질 당신에게 선물하고픈 영화다. 당신도 아멜리에의 사랑스러움에 빠져보길!

소소한 음식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입에 넣었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들을 만나보자!

떡볶이

소소하고 맛있는 음식하면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떡볶이.
요즘은 그 종류도 다양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엄청나게 늘고 있다.
학창시절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 먹던 그때 그대로
여전히 떡볶이는 착한 가격과 한결같은 맛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요즘 비싼 떡볶이도 많지만 학교 앞 포장마차 떡볶이만한 게 또 있을까?



핫도그

싼 가격으로 언제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국민 간식 핫도그!
옛날에는 많이 먹다가 한동안 잘 보이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핫도그 프랜차이즈의 급부상으로 그 명성을 다시 되찾았다.
방금 튀긴 핫도그에 설탕을 잔뜩 묻혀 달콤한 케첩을 쭉-욱 짜
한 입에 베어물면 뜨거움이 먼저,
그 다음 바삭한 빵과 소시지가 당산을 반겨줄 것이다!

붕어빵

겨울의 대표 먹거리, 바로 붕어빵. 현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우리의 겨울철 행복이 아닐리 없다.
운이 좋으면 금방 만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식어있는 것들이라 뜨거운 걸 만났을 때의
반가움은 두 배가 된다.
올 겨울은 지났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길거리 음식인만큼 봄에도 주머니에 현금은 필수!

치킨

드디어 나온 음식 끝판왕, 치킨!

소소한 것과는 어쩌면 거리가 멀어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식이

치킨만한 게 있을까 싶다.

다른 음식들보다 가격은 덜 소소하더라도

지친 하루 끝에 치킨 먹는 시간이 얼마나 소소한데도

행복한 일상인지 다들 느껴봤을 거다.

한 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마약같은 치킨이 주는 행복,

오늘 밤 느껴보는 게 어떨까?

소소한 디저트

그럴 때가 있다. 밤에 갑자기 달달한 어떤 것이 생각나 잠옷바람에 옷 한 겹 대충 꺼입고 편의점에 뛰어가서 어떤 걸 먹어야 나의 심심함이 해결될까 하며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있던 그때가 아마 대학생들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는 카페에서도 물론 달달한 디저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이 가장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장소 편의점 안의 달달한 그것들을 찾아보았다.



1. 메로나

연두색 봉지에 누가 봐도 메론이 생각나는 비주얼.
한입에 먹으면 이가 시릴 정도지만
그 달달함은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다.
달밤에 이것저것 담은 편의점 봉지와
메로나 하나 딱 들고 걸어가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 수 없다.



2. 로얄 티라미수

따뜻한 카페에서 앉아 커피와 함께 떠먹는 티라미수가 그리다면 편의점에 있는 로얄 티라미수가 어느 정도 위로해 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볼 수 있는 티라미수처럼 생크림의 비율도 많았고 편의점에 파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아주 높다.
밤에 달달한 게 어디 없을까 싶다면 당신의 손에 편의점 티라미수가 들려있어도 돈 아깝지 않을 것이다.



3. 그린티 크림 모찌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 씹살한 그 맛이 아주 중독성 있다는 것을.
요즘엔 편의점에 녹차가 들어간 디저트들이 꽤 나왔지만 내가 추천하는 것은
그린티 크림 모찌이다. 손가락으로 꼭 눌러보면 모찌모찌하게 아주 쫄득하고
그 안을 갈라보면 크림이 가득 차있다. 달달한 크림과 쫄득한 모찌가 아주 찰떡궁합이다.

4. 바나나 우유

학교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나의 피곤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달달한 무언가 일 것이다. 그때 편의점으로 가서 한 손에 움켜질 수 있는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꼭 찔러서 먹으면
그 하루의 피곤함이 싹 물러갈 것이다. 이 우유는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바나나의 그 달콤함은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5. 편의점 커피

편의점 디저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차가운 얼음과 봉지 안에 있는 커피를 섞어 마시는 아이스아메리카노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단돈 천원을 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다니..
개인적으론 카페에서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다 덜 쓰고 맛있는 것 같다.
가끔 공부하다가 피곤하고 잠이 깨고 싶다면 편의점으로 달려가 천원을 주고 사먹을 만도 하다.

TATTOO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타투
무서운 형님들만 한다는 고정관념도 깨진지 오래다

내 몸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캔버스에 그릴 수 있는 낙서
의미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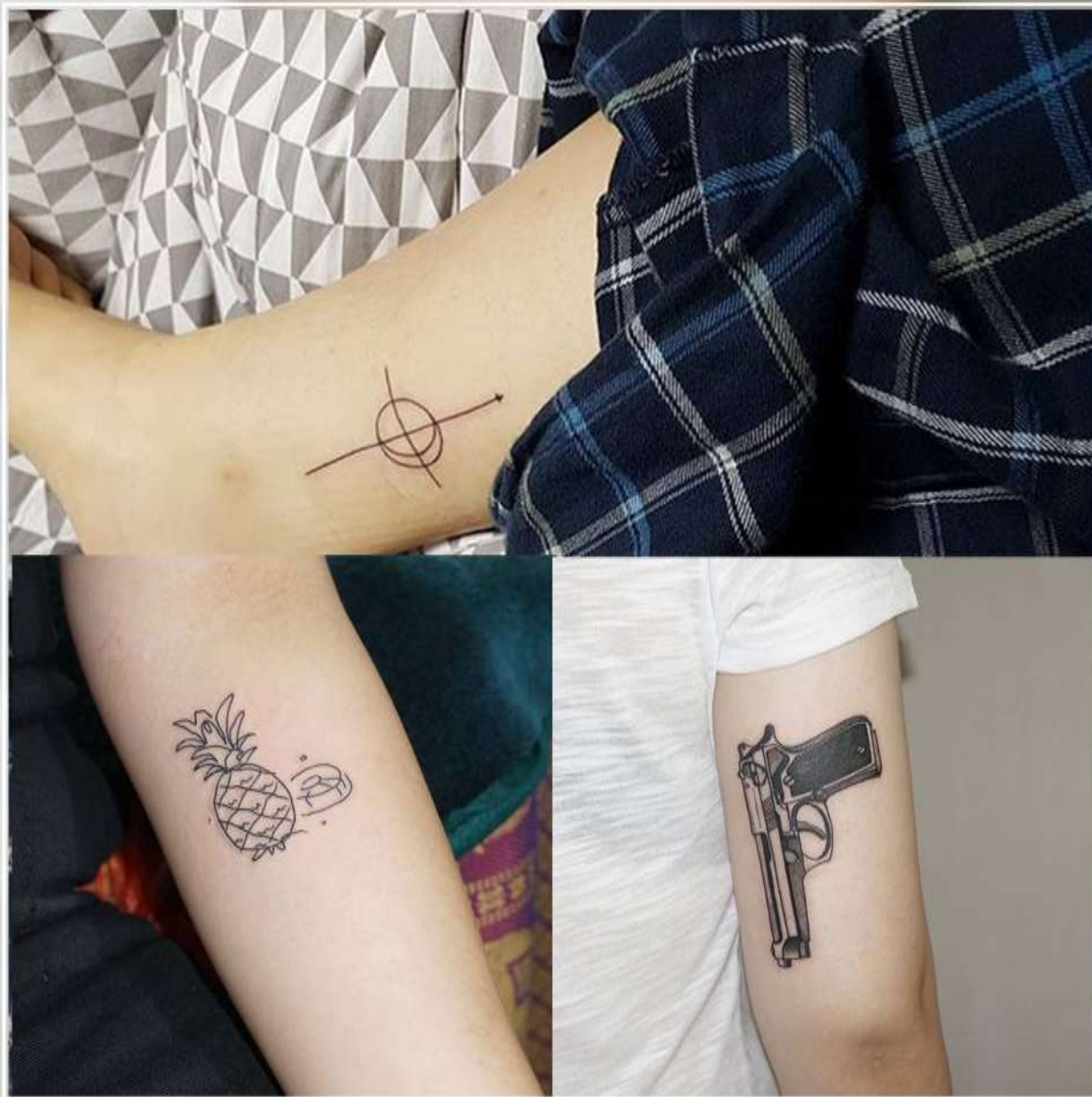
올 봄의 노출, 타투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



Instagram



bori_170103



♡ 좋아요 20.180.420 개

bori_170103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은 단순한 추억을 떠나 함께한다는 의미.
앞으로도 많이 새길 예정인 타투.





Instagram



cggggg1



♡ 좋아요 20.180.420 개

cggggg1 신을 믿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게 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도의 힘은 대단했고 단지 이 문신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표현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한 것.





Instagram



le.yeoni



♡ 좋아요 20.180.420 개

le.yeoni 나를 드러낼 수 있고 소중한 무언가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타투.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폭풍 업로드

할 수 있는

PHOTO · ZONE

어디로든 놀러나가고 싶은 봄날,
SNS에 인생샷 폭풍 업로드 할 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결국 남는 건 사진 뿐이니까요.



사과대 운동장 건너편



교수연구동 뒤 갈대밭

서문 버스정류장가는
청보리밭

Spring



법행대 근처 겹벚꽃

환경대 입구

좋아요 121212개

ecko.korea 사과대 운동장 건너편은 서문 옆의 넓은 공터로 잔디와 큰 나무들이 많아 봄에는 벚꽃을 배경으로 찍기 좋다. 그리고 여름에는 푸른 공원 같은 느낌을 준다. 종종 날씨가 좋은 날에는 피크닉을 가기도 좋은 곳이다.

- 교수연구동 뒤 갈대밭에서 우리의 포토에디터는 복고풍 옷으로 빈티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인 혹은 친구들끼리 의상을 맞춰 입고 벤치에 앉아 찍으면 인생샷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 청보리밭에 곧 푸르른 보리가 끝도 없이 펼쳐질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가서 꼭 사진을 찍기 바란다. 청보리 덕분에 마치 청춘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 한 사진을 건질 수 있다.

- 대구대학교의 겹벚꽃은 유명하다. 특유의 진분홍빛이 사진에 아날로그 도쿄 필터를 씌운 듯 보이게 해준다. 위의 사진처럼 겹벚꽃을 배경으로 젊은 날의 내 얼굴도 가까이서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떨까.

- 환경대 입구는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장소이다. 어느 계절에 가도 좋은 사진이 나와 필름카메라를 충동구매하게 만든다. 나무 담장에 걸터앉아 최대한 다리가 길어보이게끔 길게 빼서 찍는 게 포인트!

위의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echo.korea를 태그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GET READY WITH ECHO

BEAUTY & FASHION

에코의 새로운 고정코너! '겟 레디 윗 에코'

에코와 여러분의 패션,뷰티를 함께하세요

Spring On the Cheek!

완연한 봄날씨에 맞춰 한결 더 사랑스러워지고 싶다면 블러셔를 바꿔보자.

1. 마몽드 플라워 팜 블러쉬 3호

선셋로즈 7.5g 1만3천원대

차분하지만 약간의 핑크빛으로

생기 있는 로즈계열 블러쉬



2.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4호

생기빔 3.4g 1만1천원대

과하지 않은 은은한

발색의 핑크빛 블러쉬



3. 어딕션 치크폴리쉬 4호

리벤지 12ml 3만6천원대

수채화 발색이 장점인

맑은 레드계열 리퀴드 블러쉬



4. 나스 블러쉬

지나 4.8g 4만원대

웁한 오렌지코랄계열의 화사한 블러쉬





우리의 봄을 하이틴 영화처럼

봄은 당신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각자 다르겠지만, 에디터는 봄이라 하면 하이틴 영화가 생각이 난다. 싱그러움과 사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치는 계절. 하이틴 영화 속 사람들의 옷차림과 그들의 분위기는 나에게 봄을 연상시킨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한 브랜드가 떠올랐다. 바로 KIRSH다. KIRSH의 18 S/S 컬렉션 퀸즈랜드와 체리 라인으로 우리를 하이틴 영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지금부터 KIRSH 컬렉션 제품을 소개해보려 한다.

SMALL CHERRY SWEATSHIRT HS
[RED] - 59,000원

체리 라인에서 출시된 기본 맨투맨이다. 강렬하지만 부담되지 않는 빨간색과 KIRSH의 시그니처인 체리 자수와, 와펜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다.



QUEENSLAND LONG SLEEVE HS
[LEON GREEN] - 42,000원

오버 핏의 롱 슬리브는 어디서든 무난한 제품이다. 여기에 반전 있다면 네온 그린색상을 사용하여 무난한 제품에 강렬한 색으로 포인트를 줬다.

KIRSH LOGO T-SHIRT HS
[PINK] - 39,000원

존스러움과 빈티지 사이를 오가는 핑크색 계열의 티셔츠에는 KIRSH 로고가 나뉘므로 포인트를 주었다. 루즈한 핏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제작한 제품이다.



KIRSH POCKET AIRLINE BAG HS
- 52,000원

애나멜 원단을 사용한 가방은 검정색 흰색이 존재한다. 똑같은 가방이지만 재질 다른 나일론 원단 가방은 청록색 빨간색이 존재한다. 에어라인 가방은 70년대 항공사에서 많이 쓰이던 에어라인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품이라고 한다. 사이즈가 생각이상으로 커 내부 수납이 용이한 제품이다.



에코가
매달
드리는
필름 선물

現像所

이달의
필름
현상소

H Y U N S A N G S O

이 번 달 엔 어 떤 필 름 으 로 찿 아 올 까



재능을 거래하자!

재능마켓어플

Mobile

내 재능으로 먹고살기 시작!

APP

앱다운



지도로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의 재능인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재능은
도움요청하기

필요로하는 재능이
없다면 도움요청 하세요



수호천사기능으로
안심 직거래가능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니재능 내가살게

위치기반 재능마켓 플랫폼 동네의 영웅

내 의견을 정확히 한 번에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싶다면
만나서 재능을 거래하고 싶다면!
동네의영웅에서 해결하세요
소소한 재능도 초능력이 되는 곳!
이제는 내 재능으로 먹고살자.
재능을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
동네의 영웅에서 이제 재능으로 용돈벌이하세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APP깔고 #쿠폰받자!

이모티콘
증정

재능등록시
세송
이모티콘증정

구조요청시
사은품 증정

사은품
증정